

사진 한 장에 담긴 일본의 안전의식



▲ 일본 사람들이 잔디깎는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

▶ 우리나라 예초기 작업 모습



일본 여행 중 구마모토 현에 위치한 구마모토 성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곳 주차장에서는 인부 3명이 잔디깎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하는 모습에서 일본 사람들의 안전의식을 보았다.

주차장 옆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 인부 3명은 잔디를 깎으면서 예초기 날에 돌 등이 튀어 차량 또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그물망을 들고 서 있고 그 안쪽에서는 예초기를 들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초기를 들고 잔디를 깎고 있는 인부의 모습에서도 안전보호구 착용과 긴팔, 장갑, 안전화 등 철저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무더운 한 여름, 당시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날씨였고, 습기 또한 많은 상황인데도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히 안전을 선조치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전업무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왠지 모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산업안전분야에서 일본의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는 막연히 생각해 왔지만, 여행 중 문득 스쳐간 잔디 깎는 광경을 보고, “아 이것이 안전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은 2m 높이의 작업을 할 때면 안전모와 안전벨트는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현 장소에서 1m만 옮겨도 같은 안전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얼핏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본에 충실한 안전, 실천으로 옮기는 안전,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안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휴먼에러에 의한 인적 원인에 있다. 조금 천천히 느리지만 안전하게!! ‘실천하는 안전의식’,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노원 님